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 확대'

숲과 산의 도시 고창 산림자원 부가가치 극대화

고창군의 산림은 전체면적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숲과 산의 도시다. 산림은 치유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관광, 레저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고창군은 지역 산림생태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축적된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 산림공원의 2023년 사업계획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모로비리공원 자작나무숲

▲선운산도립공원,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분위기 조성 나서

선운산도립공원은 올해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공원내 꽃탑설치, 방문의 해 간판설치 등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등산로 일제정비,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동문안 녹차생태체험 단지 조성, 석상골·선운골 생태환경정비, 상가 앞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계획이다.

▲고창 읍내 도시공원, 군민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고창읍 관문에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기존 체육시설, 인공암벽장에 더해 자작나무 테마숲, 소나무 테마숲, 숲길, 물놀이장, 주차장, 유아숲 등이 들어선다. 고창군 대표 공원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모로비리공원 한쪽에는 유아숲체험공간도 들어선다. 모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네트어드벤처, 나무건너기, 우드칩체험장 등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야외학습장과 숲의 다양한 생태,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운곡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고창군은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본격적인 산림휴양 시설이 들어선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94억4,000만원을 확보해 올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캠핑센터, 캠핑장, 야외 물놀이장, 숲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산림문화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방문의 해 알릴



모로비리공원 조감도



구름골 산림문화휴양관 조감도

▲기능별 조림과 숲가꾸기 등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고창군은 올해 탄소흡수원 확충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조림 및 경제수 조림(55ha),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별 숲가꾸기(790ha)를 추진한다. 임도 5.5km를 신규로 개설하고 구조개량과 보수를 통해 임도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고창읍성과 관내 가로수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대응을 위해 예찰 체계 시스템(OR코드)을 활용하고 지상방제 활동을 진행한다. 여기에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재해가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진화인력 105명을 적재적소에 효율적 배치하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등 산불예방과 조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창천, 꽃이 흐르는 고창천변길로 새단장 매년 봄과 여름 천변길에 화사한 페튜니아 꽃길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고창천 전통시장 인도교까지 꽃길을 약 300m 확장할 계획이다. 또 고창 천변을 비롯한 고창 IC 진입로 등 4개소 총 1.5km 구간에 난간화분 3330개를 설치하고, 타이머 자동 관수시설을

고창방문의 해 맞아 선운산서 분위기 조성

고창읍 모로비리공원 공사 마무리 단계 향후 지역 대표 공원으로 모든 연령층이 만족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구름골 자연휴양림 들어서

탄소흡수원 확충 등 위해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지상방제·산불예방 조동진화에 총력

고창천, 천변길로 새단장 복지나눔숲, 치유공간으로

확충해 최상의 상태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고창군의 첫인사길 될 명품가로수길 확대 조성

고창군은 올해 고창 방문의 초입인 남고창IC에서 덕산 교차로까지의 구간을 특색있는 명품 가로수길로 만든다. 현재 고수면 봉산리 취성마을에서 남고창교차로에 이르는 면도에 군목인 소나무를 식재하여 고창만의 특색있는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관리중에 있다. 고창군은 기존 가로수 구간부터 남고창IC~덕산교차로 2km구간에 7억원을 투입해 소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역사문화 연계도로 1.5km구간에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나눔숲, 녹색치유 공간으로 재조성

고창군은 지난해 10월 녹색자금 공모사업 나눔숲(실외) 분야에 '무장면 효자요양병원'이 선정됐다.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지문을 걸쳐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